

자 화 이 기 리 리

2015 VOL.16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안고
2016년을 밝은 새해로

나에게 자활사업은 00이다!

제7대 자활명장

노순례 대표를 만나다

베스트 자활기업 소개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중앙자활센터



2015년 10월 20일, 시청광장에서 '2015 자활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100인 합창단, '한마음이 되어 부르는 노래'

〈자활읽기〉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자활읽기〉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www.cssf.or.kr)
→ 소통마당 → 홍보자료실에서 e-book(전자책)과
PDF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SSN 2288-0445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자활읽기〉 통권 제16호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심성지 발행처 (재)중앙자활센터 ☎ 02-3415-6900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 www.cssf.or.kr

디자인·인쇄·제작 동아이앤디 ☎ 02-2020-1760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의 자료는 중앙자활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외부 필자의 글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활이 기

2015 VOL.16

Contents

- | | | |
|---|--|--|
| 04 <u>포토 에세이</u>
희망가 | 18 <u>자활기업</u>
• 자활기업을 소개합니다
• 한눈에 살펴보는 자활기업 | 30 <u>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u>
자활센터, 새로운 행복을 선사하다
강성아 용인지역자활센터 팀장 |
| 06 <u>2016년, 새해</u>
•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안고
2016년을 밝은 새해로
• 새해 새 아침, 희망을 기쁨을 사랑을... | 22 <u>베스트 자활기업 소개</u>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배현표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사무국장 | 32 <u>문화산책</u>
리듬으로 빚어낸
맛과 향기의 타악멜로뮤지컬
「난타」 |
| 10 <u>새해 맞이하기</u>
2016년 달라지는 자활사업 | 24 <u>자활상품이 좋다</u>
찐빵 하나에 담긴 인생,
희망 그리고 힐링
홍천찐빵 남기봉 반장 | 34 <u>카툰 에세이</u> |
| 14 <u>자활사업 소개</u>
나에게 자활사업은 00이다! | 26 <u>계절읽기</u>
서민들의 애환을 품다
한손에 담은 따뜻한 위안 '찐빵' | 35 <u>자활TALK</u>
자활사업 유형/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문 Q&A |
| 16 <u>희망스토리</u>
제7대 자활명장
영광지역자활센터
옥당골 맑은청소 노순례 대표 | 28 <u>자활사업 유형/기능다변화 시범사업</u>
남원지역자활센터를 만나다
양기운 남원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이사장) | 36 <u>굿바이, 2015</u>
사진으로 만나는 중앙자활센터 |
| | | 38 <u>책으로 세상 엿보기</u>
겨울엔 책이 가장 따뜻해 |

희망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틔운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향로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고비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 문병란의 〈희망가〉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안고 2016년을 밝은 새해로

힘겨웠던 2015년은 역사로 사라지지만
그 어려움의 잔재들은 2016년까지 지속될 터.
정치·경제·국제적 대변동을 붉은 원숭이 같은 마음으로 극복해야 하겠다.



다사다난. 한 해가 끝나고 지난해를 돌아보면 늘 따라붙는 말이다. 2015년도 다사다난했다. 국가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대변되는 위험성에 노출된 한 해고, 연말을 맞은 우리 사회는 고용 문제, 노동문제, 고령화문제가 뒤섞인 종합적 위험에도 노출되었다.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시내 한복판이 마비되는 시위사태로 갈등이 증폭될 대로 증폭되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 또한 퍼져나갔다. 그래서 과격한 시위에 대한 여론의 엄중한 견제가 벌어졌다. 정치적으로는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서로 갈라져 대립하는 형국이 연출되었고, 연말 정국은 야당의 분열 사태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 같은 대의보다는 자신들의 해계모니 싸움에 더 연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한 해였다.

이제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다. 붉은 원숭이해는 힘을 발휘하는 시절이라고 하니 기대감을 가져본다. 원숭이는 십이지 가운데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신(申)의 동물로 붉은 원숭이는 힘센 수컷 한 마리를 왕으로 만들고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생활하는 습성이 있다.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이 바로 붉은 원숭이다. 비록 안팎의 상황은 어렵지만, 이 기운을 우리 생활 속으로

받아들여 모두가 기운을 모은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을 내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총선의 해, 복잡다단할 2016년

새해는 총선의 해. 4월 13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현재 분열되고 있는 야당의 합종연횡에 따라 결과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시 확정되는 지역구 문제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선거구 획정의 위헌판결에 따라 새롭게 판을 짜야하는 과제를 안은 정치권은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이 변수가 안정되더라도 야권분열로 인한 이해득실 계산이 남는다. 그러니까, 총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지극히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 연출될 것은 뻔한 일. 확실한 정치지도가 없는 상태가 되면 공약남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 시작된 선거운동에다 유권자에게 어필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표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 선심쓰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다시 국가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저래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 새해정국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 2016년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새해를 전망했다.

미국은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중국경제는 성장 저하가 예상된다. 저유가로 원자재 생산 국가들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진국의 수입수요 위축, 글로벌 분업구조 약화로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수출중심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취약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리스크도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의 급변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늘 잠복해 있는 2016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경기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다. 수출부진에 소비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5% 수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 쪽 전망도 3.0% 수준이다.

다만 올해 크게 늘어난 주택분양이 투자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주택건설 투자가 2016년에는 호조를 보일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세 저하 우려는 계속되고 낮아진 소비성향이 유지되면서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수도 올해 30만 명에서 내년은 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도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불안에 따른 등락 되풀이가 겹쳐져 외환 상황도 그다지 밝지는 않다. 이런 추세들이 종합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과 통화약세로 이어져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2만7100달러, 내년에 2만7000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안정에 국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새해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로

원숭이해에 태어난 사람은 재주가 많고 총명하다고 한다. 언제나 좋은 면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강감찬 장군과 율곡 이이 선생이 대표적인 원숭이띠 위인이다. 정열적인 인성을 갖고 있고 온몸으로 표현을 잘하고 천부적으로 지도자나 혁신가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병신년 원숭이띠의 사람들.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어 투기적인 모험을 하더라도 위험을 정확히 판단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불(火)의 원숭이 해여서 모든 원숭이띠 중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병신년.

최근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이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경쟁심이 강하고 질투심 대단한 붉은 원숭이의 창조적 성향과 의지력, 결단력, 솔선수범의 행태들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붉은 원숭이가 다른 이들보다 우위를 점하길 좋아한다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힘을 내 앞으로 나아간다면 2016년이 희망의 한해, 밝은 미래의 초석을 놓은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글 황규화 채널A 시청자심의팀장



2016년, 새해

새해 새 아침, 희망을 기쁨을 사랑을...

새해의 시작도
새 하루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을 잘 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겸손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아침이여

어서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사철 내내 변치 않는
소나무빛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를 키워온 희망

힘들어도 웃으라고
잇을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희망은 자꾸만 우리를
재촉하네요

어서
기쁨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배추밭에 앉아
차곡차곡 시간을 포개는 기쁨
흙냄새 가득한
싱싱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네요

땅에 충실해야 기쁨이 온다고
기쁨으로 만들 숨은 싹을 찾아서
잘 키워야만 좋은 열매 맺는다고
조용조용 일러주네요

어서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언제나
하얀 소금밭에 었드려
가끔은 울면서
불을 쪼이는 사랑

사랑에 대해
말만 무성했던 날들이
부끄러워
울고 싶은 우리에게
소금들이 툭툭 튀며 말하네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기저기 팽개쳐진 상처들을
하얀 봉대로 싸매주라고

새롭게 주어진 시간
만나는 사람들을
한결같은 따뜻함으로 대하면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눈부신 소금꽃이 말을 하네요

시작을 잘 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설레이는 첫 감사로 문을 여는 아침
천년의 기다림이 비로소 시작되는
하늘빛 은총의 아침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동안에도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해 새 아침이여

- 이해인의 <새해 새 아침>

2016년 달라지는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급여와 관련해서는 2016년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의 단가는 시장진입형 참여자의 경우 34,880원(3.3%), 인턴도우미의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은 34,880원(3.3%),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31,270원(3.3%)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31,270원(3.3%), 근로유지형은 22,550원(3.4%)이다. 다만 실비에 대한 변화는 없이 3,000원 동일하다. 전년도에 비해 시장진입형은 1,110원이 사회서비스형은 1,000원의 단가 인상이 반영되었다.

또한 참여자 기준과 관련하여 조건부과제의 기준에 미취학 자녀 양육의 경우 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조건부과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활사업 지원체계

자활사업 지원체계면에서는 그동안 핵심인프라로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정수가 확대되어 추진된다는 점이다. 2015년 평가결과 3년 연속 최하위기관과 지자체의 지정운영 반납 등으로 지정 취소된 지역을 포함하여 6개 센터가 신규 지정(조건부지정3) 될 예정이다. 이는 2011년 지역자활센터가 247개 지정 운영된 이후 지역자활센터가 미설치된 기초시군구 지역의 축소이며, 근로능력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적 측면에서 촘촘한 그물망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더불어 중요한 변화는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에 대한 도입이다. 성과계약의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계약주체는 보건복지부로 하고 지자체 재량 가산점(10%)을 부여, 향후 성과계약 안정화 단계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그간 성과평가 결과

와 최하위 기관에 대한 현황을 참고하여 성과계약의 기준선을 설정하며, 평가실시에 대한 부분은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최소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전의 성과평가 방식과 결과는 2016년 평가까지만 적용되고 5년간 3회의 최하위 기관에 대한 삼진아웃을 '16년 성과평가를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부분도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역자활센터와 공통계약으로 진행되는 성과계약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선, 지자체 재량점수의 비율로 가산하여 점수가 산정될 예정이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자활센터 주요 사업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면에서는 교육과 관련하여 새롭게 2015년 전문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자활연수원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1997년 청소년 자활지원의 고취와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했던 청소년 자활지원프로그램이 2016년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청소년 자활지원프로그램 사업폐지 확정에 따른 것이며, 다만 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기간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소년 관련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 자활사업의 유관 시설로서의 서비스 이관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 내 실무자 고용승계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부 2017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폐지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 내 여성청소년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그동안 청소년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지역자활센터도 이용청소년에 대한 관련 서비스 이관을 적극지원하고 법인의 인사 협력 등을 통해 사업폐지에 따른 갈등최소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

그동안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조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공모를 통해 2015년 지정된 5개 지역자활센터(남원, 마산,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의 안정화 결과를 활용하여 신규 추가 선정(2개 지역, 안성/충주)된 지역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장애요인의 최소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역자활센터는 기존 지역자활센터 명칭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자체의 우선구매, 우선위탁, 수의계약등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참여기간은 해당연도에 참

여한 것으로 기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시범사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활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흡수 통합 시 자활기업 인정서 및 지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시군구에 보고함으로써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지역자활센터의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공통회계계정을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중앙자활센터가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위원회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와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이중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광역자활센터 성과계약

광역자활센터의 성과계약에 대한 진행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 이도록 하고 있다. 이미 전국 14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사 업을 수행 중인 광역자활센터는 실질적인 성과계약의 진행을 위하여 3년 주기 성과계약을 진행하고, 운영주체 변경 시 중앙 자활센터로 변경할 경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지정 절차의 간소화 사업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도록 진행하도록 될 예정 이다. 이는 자활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등의 기능수행 및 자활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자활센터 설치 취지와 부합하고 광역자활센터 사업 의 조기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이다.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중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경우 비수 익형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도 통장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대신 내일근로장려금의 지급이 이 루어지도록 예산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급해지 기준에 대하여 월 최저임금의 기준선을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요건 완화와 지 급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 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체가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사용용도 증빙 용처에 관해서도 현재 4가지 용처(주택 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 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이외의 추가 반영(ex 국민연 금 미납금 납입 등)될 예정이다. 📄



나에게 자활사업은 OO이다!



동반자의
길

기쁨은 **가능성**을
찾아가는
즐거움 여정

친정엄마의
아픈손가락 

행복한 버지를
가꾸는 **맛집** 

조력가

세상을 바꾸는 힘
희망을 만드는 징검다리
사회보장의 마지막 보루

희망의 발걸음
삶의 발판

직장
밥값을 해야 하는 곳
치열함
희로애락

지난 10월 20일에 진행한 '2015년 자활한마당 축제'에서
상영한 동영상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7대 자활명장

영광지역자활센터
옥당골 맑은청소 노순례 대표

단 한 발만이라도 내딛고 싶어 자활의 문을 두드린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긍정 에너지를 쏟아냈다.
어느새 그녀의 이름 앞에는 자활명장이란 명예로운 수식어가 붙게 됐다.



옥당골 맑은청소는 아파트 입주청소, 공공기관 청소, 가정집, 병원 청소 등 전문청소업체로, 입소문만으로 상당한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
옥당골 맑은청소 ① 061-352-1482 ②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9

자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2002년도에 처음 참여했다. 그 전에는 택시운전을 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조건부 수급자 판정을 받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청소사업단에 참여했나?— 처음부터 참여하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 간병사업단에 들어가 1년 반 근무했다. 사업단 전환 코스가 있어서 1순위에 청소사업단을 넣어서 2004년부터 청소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종의 직장전환을 한 것이다.

자활기업으로 첫 출근할 때의 심정은?—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댈 곳이 있어 감사했다. 또 누군가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위안이 됐다.

기업으로 나갈 때 누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나?— 청소사업단 팀장님이 가장 많이 도움을 주셨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르쳐 주신다.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지만 자주 통화한다.

옥당골 맑은청소에 대해 소개한다면?— 주로 가정집, 입주청소, 병원, 계단청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집 청소 일을 가장 많이 하는데, 집안일을 신경쓰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집안청소 등을 맡아서 한다.

사업 확장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따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다. 우리 업체를 이용해본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집은 사적공간인 만큼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노출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 직원 몇 명인가?— 직원 3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6명으로 늘었고, 12월에 1명이 더 참여할 계획이다. 일반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자활기업 운영의 가장 큰 장점?— 지역자활센터가 뒤에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 고객 소개는 물론 모르는 모든 것을 엄마처럼 알려주고 도와준다. 제가 힘들고 도움 받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

성장 비결이 있다면?— 특별한 성장비결은 없다. 그저 열심히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지역신문 홍보도 안했다. 같이 일하는 분들께 고맙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시니까 입소문이 저절로 나는 것 같다.



“
지역자활센터가 뒤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엄마 같은 곳이에요
”

CEO, 대표가 될 줄 알았나?— 그렇지 않다. 다만, 일하는 것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일하다가 실수할 경우는?— 작은 경우는 본인이 최대한 배상하고, 큰 것은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표인 내가 배상한다.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내가 부담하고 싶기도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께 책임감을 드리려고 본인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 간의 부조화가 있나?— 서로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달라서 늘 웃으며 일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서로 이해해가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좋은 일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료로 시골의 어르신 댁 청소를 해드린 적이 있다. 온 집이 쓰레기장이었다. 밭 디딜 틈이 단 한 곳도 없었다. 5-6명이 하루 종일 치웠다. 마당까지 싹치워드렸다. 읍사무소에서 의뢰해온 것이다. 할아버지께서 집을 떠나지 않고 한 쪽에 앉아서 계속 지켜보셨다. 집을 안 비워주시길래 아예 계실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청소하는 것을 보시라 했다. 그런 집이 또 나오면 무료로 헤드릴 의향이 있다.

고객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다. 문고리가 빠지거나 고장난 경우 바로 즉시 알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명장이 되어서 자녀들이 자랑스러워 했겠다.— 자활한마당축제에 딸이 같이 왔었는데, 인증샷 남긴다고 계속 사진을 찍었다.

자활명장으로 추천 받은 계기가 있는지?— 네트워크회의를 참석했는데 팀장님께서 자활명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추천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셨다. 다들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며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여러번 물어보시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일하며 지내다가 소식을 들었다. 시상식을 하니 그제야 실감이 났고, “엄마, 그 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하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앞으로 옥당골 맑은청소의 포부?— 영광이 작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 이번에 장성에 가서 사업노하우도 전수해주고 왔다. 어차피 비우고 왔다가 비우고 가는게 인생이다. 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국 기업이 될 것을 상상해본다(웃음).  글·사진 중앙자활센터

자활기업을 소개합니다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요건을 갖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조직을 말한다.
2015년 10월 기준 1,388개 자활기업, 34개 광역자활기업, 4개 전국자활기업이 있다.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
 -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단위의 홍보영업조사 등 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
 - 자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있는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자활기업을 인정
- **광역자활기업의 인정**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 자활기업을 구성하는 경우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 및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의 자활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 도모**
 - 향후 7개 전국자활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적인 사업망 및 규모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 **전국자활기업의 인정**
 - 전국자활기업은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인정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서 발급
 - 2개 이상의 광역자치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함
- ※ 필요시 민간전문기관 활용 가능

전국자활기업 리스트

구분	업종	기업명	주요사업
1호	양곡	(주)희망나르미	정부양곡배송, 미국유통
2호	주거	사회적협동조합한국에너지복지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3호	특수청소	(주)드림클린	전기전자통신 전문청소
4호	돌봄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서비스

* 2015년 기준



베스트(Best)자활기업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활기업 중 자활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모범사례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성과 창출 및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활기업의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 2015년에 진행된 제2회 BEST 자활기업은 전국 1,200여 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비율 및 매출, 사회기여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총 10개의 자활기업이 선정됐다. 베스트 자활기업은 생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사업자금 대출, 자활사업단 위탁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평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5 베스트 자활기업

연번	구분	시도	시군구	기업명
1	전국	전북	전주	한국에너지복지센터
2	광역	부산	부산진구	(주)크린케어
3	지역	강원	속초	속초 에스씨환경
4	지역	경기	성남	(주)행복도시락 성남점
5	지역	경기	부천	(주)희망나눔
6	지역	경북	상주	참사랑 간병 자활기업
7	지역	대구	서구	희망나르미협동조합
8	지역	전북	고창	(주)깨끗한 오늘
9	지역	충남	금산	금산주거복지센터
10	지역	충남	천안	즐거운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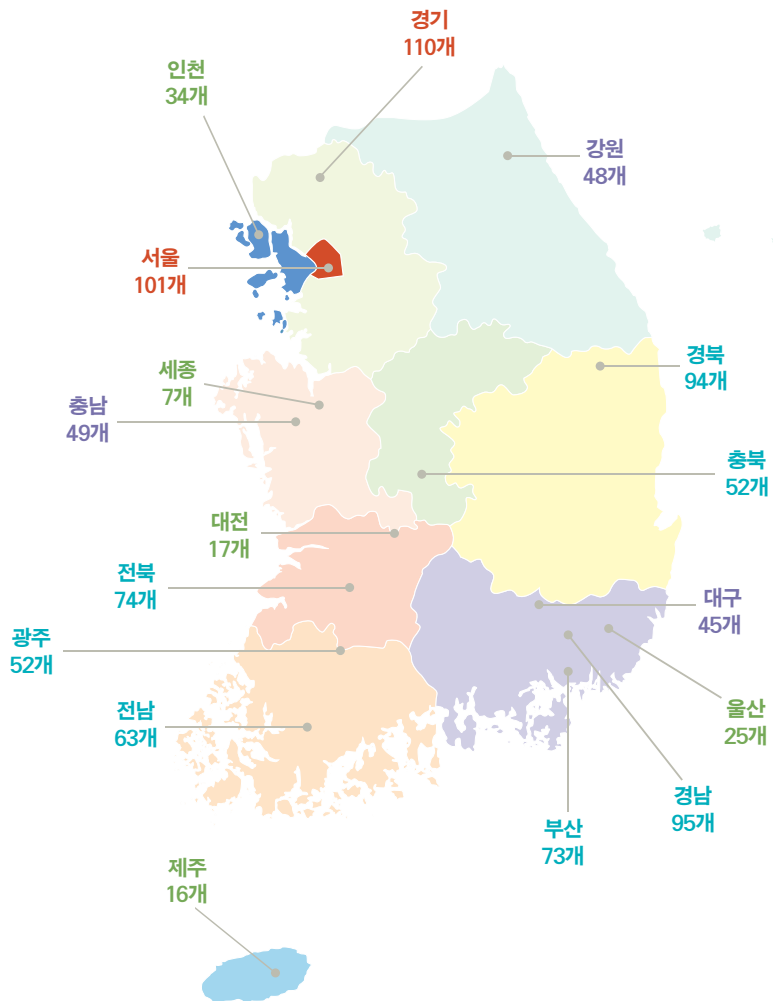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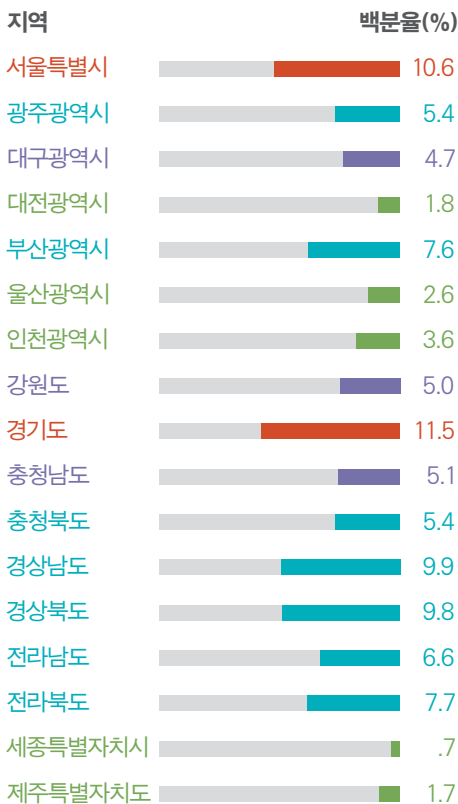
한눈에 살펴보는 자활기업

중앙자활센터 자활기업 성과등록(<http://jahwal.officepage.co.kr>) 시스템에
등록된 자활기업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지역별 자활기업 분포 현황

시스템에 등록된 자활기업은 2015년말 기준 전체 955개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서울특별시가 10.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경상남도과 경상북도가 각각 9.9%, 9.8%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세부적인 갯수는 오른쪽 지도 참고



시·군·구별 자활기업 분포 현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업을 시·군·구 그리고 광역자활센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시 단위가 전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 지역이 34.5%, 군 단위가 2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도 0.8%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업 분포현황	빈도	백분율
시	409	42.8
군	209	21.9
구	329	34.5
광역시	8	.8

자활기업 실무자 참여여부

자활기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데 있어서 실무자의 역량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체 955개 중 약 20.9%에 해당하는 200개 업체에 자활사업 실무자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다.

실무자 참여여부	빈도	백분율
NO	755	79.1
YES	200	20.9

자활기업 형태

자활기업의 법적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955개 자활기업 중 69.2%에 해당하는 661개 자활기업이 개인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체 17.6%인 168개 자활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조합 형태도 전체 6.0%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주목해 볼만 하다.

자활기업 형태		빈도	백분율
개인사업자		661	69.2
법인사업자	유한회사	68	7.1
	주식회사	168	17.6
	합명회사	1	.1
협동조합		57	6.0

광역 자활기업 여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업 중 전체 16.6%가 전국단위의 광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자활기업 여부	빈도	백분율
무	796	83.4
유	159	16.6

저소득층 주거환경은 개선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는 늘리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2008년 1월, 한국에너지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및 에너지효율개선 시공과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이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와 '주거복지' 아젠다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전국 200여 주거복지 자활기업들과 함께 시공 및 컨설팅 전국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4년 6월 센터는 서울에서 전주로 본점을 이전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올해 주식회사에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조직전환을 완료하여 공익적 사명을 최우선하고 있다.

센터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은, 먼저 LH 수선유지급여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자활기업의 입장에서 대응하기도 하며, 2014년 12월에는 변화한 주거급여에 대해 국토교통부 사무관을 모시고 주거복지 자활기업 대상 설명회를 대전에서 진행했었고, 2015년 12월에는 중앙자활센터와 주거복지 자활기업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에너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시공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인 창호시공과 단열 공사를 통해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었는지 측정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기업과 협력하여 사회공헌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댐 유역 인근 물 환경 개선 사업인 K-water '행복가득 水' 프로젝트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전국의 150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가구, 올해에는 168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가구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 사업소 지역인 인천, 포항, 광양지역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인 '에너지 드림' 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거복지 자활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중앙자활센터와 주거복지 자활기업들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 드림'을 2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센터에게 특별한 한해였습니다. 먼저 10월 20일 서울 시민광장에서 진행된 '2015 자활한마당축제'에서 보건복지부 선정 '제2회 베스트 자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9월에는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에서 '좋은세상, 나눔이상 기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센터를 소개할 때 '주거복지 자활기업을 위한 전국자활기업'이라는 슬로건을 씁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한국에너지복지센터는 신규 사회공헌사업 개발 및 위탁을 통해 자활기업들이 더 많은 일거리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배현표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사무국장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http://www.coopewc.or.kr>

☎ 063-255-0479 ☎ 063-274-0405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535-3 1층

지난 10월 펼쳐진 자활한마당'에서 센터는 '제2회 베스트 자활기업'으로 선정됐다.



주요연혁

일자	주요내용
2015.12	국회 토론회 개최[주제: 자활기업, 사회적프랜차이즈 가능한가?]
2015.10	2015 자활한마당축제 '베스트자활기업' 선정
2015.09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좋은세상, 나눔이상-기관상' 수상
2015.05	K-water [행복가득수] 프로젝트 포스코에너지 '에너지드림' 사업 (인천, 포항, 광양지역)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비영리법인) 조직전환
2014.11	본점이전 (서울→전주)
2014.06	K-water [행복가득수]프로젝트 전국 150개소 포스코에너지 '희망에너지, 사랑나눔' 사업(인천, 포항, 광양지역) 가구 및 시설
2014.04	현대제철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에너지진단(인천,당진,포항지역)[4년 연속 시행]
2013.1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2013-09호]
2013.07	보건복지형 전국자활기업 인정[제2013-01호]
2013.05	대한석유협회 '취약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진단[3년 연속 시행]
2013.03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컨설팅
2012.09	한국에너지재단 방 한칸 프로젝트 진단(논산, 금산지역, 21가구) 강원광역주거복지센터 진단 컨설팅 및 CE3교육
2011.11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주택에너지 합리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수행'
2010.04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주택에너지효율진단(100가구)
2009.09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 '취약사회복지시설에너지효율개선사업' 평가를 위한 에너지 진단 (9개 시설)
2009.06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주식회사 상표권 등록(특허청)
2008.06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시공계약 (서울5개구, 168가구)
2008.01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설립

찐빵 하나에 담긴 인생, 희망 그리고 힐링

홍천쌀찐빵 남기봉 반장

남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모토라는 '홍천쌀찐빵'의 남기봉 반장님.

재료 하나 허투루 쓰지 않는 올곧음으로 '착한 찐빵'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오늘도 동그란 찐빵 속에 인생을 담아낸다.



반죽에 우유, 막걸리를
함께 넣어
빵피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홍천쌀찐빵의 특징이에요.

자활사업(찐빵)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47세 때 우연히 건강관련 서적을 보게 됐어요. 남자 평균수명이 85세라는 말에 놀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일을 해야 건강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지영서대학교, 업체 두 군데가 진행하는 희망교육에 대상자로 선정돼 6개월 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찐빵업체 사장님을 만나 운 좋게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업체 사장님이 그만두면서 공석이 생기자 가게에 와서 기술을 배우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찐빵과의 인연이 시작된 셈이죠.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강원광역자활센터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0년 1월 원주 신림면에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업치고 적자 없이 꾸려갔고, 힘들었지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1년 반 정도 운영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쉬던 중, 홍천지역자활센터에서 찐빵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겐 좋은 기회였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곳 홍천에 2013년 4월 사업단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사업장에는 총 몇 명의 직원 근무하시나요.

6명이었는데 1명이 빠지면서 현재 5명이 근무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주말 근무는 안 하기 때문에 주문량이 많을 때 애로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쌀찐빵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세우신 목표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지요.

홍천지역자활센터에서 제안받아 사업을 시작할 때 제 나름대로 3개년 계획을 잡았어요. 1년차 시설, 2년차 기술력, 3년차 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했었죠. 정말 운이 좋게도 3개년 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어요. 포장 디자인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늘었고, 블로그와 카카오톡 등 을 통한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강원KBS 프로그램에서까 지 찾는 강원 명물이 됐거든요(웃음). 몸은 힘들지만 행복한 시 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을 순조롭게 꾸려가고 계신데요.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 (SNS) 이외에 추가적으로 홍보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 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 봐도 될까요.

강원도에는 다양한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홍천에서 시작하는 첫 해에 여러 축제를 다니며 쌀편빵을 홍보했죠. 맛있다는 입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 어요. 2013년 매출액 2,500만 원을 시작으로 2014년 5,500만 원, 2015년 매출액 1억 원 달성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5월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38선 중 먹거리 우수상품 20선에 선정됐는데, ‘홍천쌀편빵’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우선 밀가루와 쌀가루 혼합비율이 좋습니다. 반죽에 우유, 막걸 리를 함께 넣어 빵피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요. 빵에 막걸리향이 배어 구수한데 그 맛이 일품이랍니다.

자활기업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2013년 홍천 찰옥수수축제 때 참가했었는데 20개들이 100박스 를 오전 11시 경에 모두 팔았어요. 사람들에게 맛있다고 인정받 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 축제 때는 2,400박스를 팔았다는 데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블로그를 통해 구매한 뒤 먹어보고 재구매할 때도 보람을 느껴요. 고객들의 재구매가 늘어나 지난 10월에는 드디어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쌀편빵,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빵피가 건조해질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보다는 찜솥 에 20분 정도 쪄 먹는 게 맛이 좋습니다.

편빵은 언제 겨울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날씨가 더운 시기와 매 출 차이가 있나요.

편빵이 겨울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웃음). 보통 6, 7월 에 매출이 저조하긴 하나 여름에도 잘 팔리는 편입니다. 매출이 낮은 달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지역축제 행사에 참여하 기도 하고, 4월과 같은 비수기에는 할인행사를 통해 매출을 올 리기도 합니다. 비수기에는 행사나 할인으로 매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활기업 홍천쌀편빵이 나아갈 계획은 무엇인가요.

편빵제조시설 증설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느낍니다. 최소한의 기 반시설로 시작한 사업이라 빵을 만들면서 시설을 늘려왔는데,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죠. 현재 평균 월 매출 800만 원을 달성하고 있는데 연매출 1억 원을 훌쩍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예요. 또 내년 중 에는 편빵사업 활성화 및 홍보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편빵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열어볼 계획입니다. 

글·사진 손희정 기자

홍천쌀편빵

<http://blog.naver.com/01namgb>

☎ 033-436-9090 주문전화 010-7622-3100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회망로 13길6

① 단호박 쌀편빵 14,000원(1박스)

쌀편빵·앙고없는 쌀편빵·모듬 쌀편빵·썩 쌀편빵·옥수수 쌀편빵 12,000원(1박스)

서민들의 애환을 품다

한손에 담는 따뜻한 위안 ‘찐빵’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찬바람 뽕뽕 부는 겨울이면 찐빵만의 진가가 빛을 발한다.
술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보기만 해도 온몸에 열기가 돌고, 한입 가득 베어 물면 느껴지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빵과 구수하고 달콤한 팥의 조화가 입안을 행복하게 한다.



“너 찐빵같이 생겼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말자. 얼굴이 둥그랗게 생겼다는 말인데, 옛날에는 미녀, 미남형 얼굴이다. 가름한 얼굴이 각광받는 요즘에는 자칫 얼굴이 도톰하고 살이 찐다는 얘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렇다 치더라도 얼굴을 그리 맛있는 찐빵에 비유하니 기쁜 일이지 아니한가.

찐빵에 깃든 역사

찐빵은 말 그대로 수증기로 찐(steam) 빵(bread)다. 영어로는 ‘a steamed bun stuffed with sweet bean paste’로 표현하는데 달짝지근한 팥을 소로 채웠다는 얘기가 된다. 밀가루피에 야채나 고기 등을 넣으면 만두요, 단팥을 채웠으면 찐빵이다. 찐빵은 우리의 전통음식 같지만 여러 문헌과 설(說)을 종합하면 일본에서 건너 온 것으로 보는 게 맞는 듯하다.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본다. 즉 중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을 찐빵의 유래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 승려가 원나라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귀국하면서 함께 온 중국 사람이 일본 절에서 만두를 만들었다. 하지만 절에서 고기를 넣을 수 없게 되자 단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후 일본 승려와 신도들이 즐겨 먹다가 일왕에게까지 맛있다는 소문이 나 전국으로 퍼졌으며, 이게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때 넘어왔다는 얘기가.

누구나 만들거나 생각해낼 수 있었던 찐빵이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이후에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밀가루가 그만큼 귀했기 때문이다. 고려나 조선시대 모두 밀가루가 귀했다. 일반 백성들은 국수조차 먹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흔한 메밀을 주로 이용해 국수나 전병 등을 만들어 먹었다. 밀을 소량으로 재배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술을 만드는 누룩으로 사용됐다. 우리나라에 밀가루가 많아진 것은 6·25전쟁 이후다. 미국의 원조물자로 주로 밀가루가 반입된 이후에나 국수, 빵 등을 자주 접하게 됐다.

찐빵은 어찌 보면 밀가루를 이용해 만드는 빵 중 가장 기본적인이다. 밀가루를 반죽해 발효시킨 다음 덩어리로 보관하다가 단팥을 넣어 찌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반죽과 발효과정에서 때로는 익반죽, 냉반죽 등을 조절해야 하고 발효 때에는 온도와 시간조절 등 고도의 과학이 작용한다. 재료 선택에서는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해야 하는 안목과 애정, 그리고 전 과정에서는 정성과 혼(魂)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발효시킬 때 주로 막걸리를 사용했지만 요즘은 베이킹파우더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색깔도 흰색에서 최근에는 단호박, 쑥, 비트 등을 첨가해 노랑, 연두, 빨강 등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 강원도 횡성군의 안흥찐빵이 전자라면, 원주의 황돈빵은 후자다. 찐빵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맛과 향, 그리고 모

양 등 특색이 다르지만 안홍찐빵은 향토음식을 지역 브랜드로 만드는 데 성공한 케이스다.

안홍찐빵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한 언론을 통해 안홍에서 찐빵장사를 하는 심순녀 할머니의 스토리가 공개됐고, 이후 한두 개씩 찐빵가게가 생기면서 ‘찐빵거리’가 형성됐다. 안홍면사무소 앞에 가면 예쁜 마스코트에 찐빵마을을 표현한 조형물(찐빵탑)이 세워져 있다. 통 단팥을 넣은 찐빵도 등장해 씹는 식감을 배가 시켰다. 베이킹파우더 대신 막걸리로, 그리고 달걀 흰자와 소금, 설탕만을 사용해 발효를 시킨 것이 안홍찐빵의 특색이다. 강원 원주의 황둔찐빵은 오색을 띠고 있어 더욱 군침을 돌게 한다.

찐빵의 진화

‘호빵’이라는 것도 있다. 1970년 초 국내 한 식품회사가 거리에 서도 금방 찐빵을 데워 먹을 수 있는 기계를 제작·보급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이후 호빵은 팔 이외 만두 속 같은 야채를 넣어 야채호빵이라는 품목으로도 출범되었다. ‘호빵’이라 부르는 여러 이유도 있지만 겨울철 손으로 붙잡고 ‘호호’ 불어 먹어서 호빵이라 부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찐빵은 프랜차이즈로도 발전해가고 있다. 충청권의 한 사업가는 점통에서 수증기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기계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도로가에 찐빵과 만두가게를 차려놓고 추운 겨울 지나가는 차량들을 멈추게 했다. 이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이처럼 찐빵은 역사나 조리방식,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서민들과의 깊은 교감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다. 배고픔을 달래주던 찐빵 하나는 바로 심적 위안의 상징이었다. 

글 이기진 동아일보-채널A 대전충청취재본부장/한식·양식·중식 조리기능사



원래 흰색이었던 찐빵은 최근 단호박, 쑥, 비트 등을 첨가해 노랑, 연두, 빨강 등 다양한 색을 띠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지역자활센터를 만나다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지역자활센터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새로운 책무를 고민하며, 신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2015년 3월, 남원지역자활센터는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인가를 승인받았다.

남원지역자활센터 ☎ 063-632-4774

2014년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5년 3월 30일 설립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지역자활센터에는 인가 후 7개월이 경과하면서 어림없이 시범사업의 열개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에는 지역자활센터가 갖는 특별한 어떤 것과, 협동조합이라는 일반화된 속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 물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해 온 복지부 자활사업을 어떻게 속성 지을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남원의 경우 그것을 ‘출발선 변경사업’이라고 봤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호루라기를 부는 「시작」 이전에 필요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준비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주도의 자활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열 다섯 해 반복해서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동안 ‘자활사업 경영주체는 누구인가? 자활사업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 애매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복지부 주무부서가 창의적으로 시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시범사업은 **첫 번째** 조합원이 자활사업의 경영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반영되는 것이다. 곧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조합원이 자활사업의 주인으로서 책임지는 경영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혁신사안은 자활센터 종사자(사무직원) 회계주머니와 자활근로사업 매출회계주머니가 섞인다는 사실이다. 더욱 자활(공동체)기업 종사자들의 사회적협동조합원 직원으로의 참여·흡수가 권장됨으로써 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 등 따로따로 관리하던 단위들의 주머니가 통합하게 된다. 이에 자활사업 밑둥치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물질순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남원지역사회의 최적 공적 인프라로 성장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자활근로매출액의 일부분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비로 충당,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지침상 반드시 자활 근로참여 주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1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생계형 자활근로 동등 인건비 지급이라는 철용성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혁신요소를 등장시킴으로써 「자활근로평등급여」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시범사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매우 본질적인 변혁요인과 맞닥뜨리면서 그 귀추를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제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지역자활센터는 그 기초 골격이 지역 내 물질순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남원지역사회의 최적 공적 인프라로 성장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되었다.

①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 ② 유기농산물의 지역 내 자급 ③ 의·식·주를 둘러싼 종자, 에너지 등의 자립을 향한 실천 ④ 협동의 자발성이 최선의 생산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회적 협동경제의 시범 ⑤ 협동조합들이 서로 울타리를 넓혀가는 지역사회 협동조합 연대의 단초, 뿐만아니라 ⑥ 해외연대와 결합되는

협동형 인재의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도시 청년일꾼들이 동참하여 살붙이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①부업식·부산물 재활용 가축사육 ②가축갈집생산 ③유기순환영농 ④유기농식재 식당경영 ⑤자체생산식재 공통밥상 ⑥모듬택배 ⑦유기농식재 전처리 납품 ⑧초소형 구들흙집 신축 ⑨도축 후 정육점 준비 ⑩양잠기반 준비 ⑪폐경작지 보전 이동식 가축 방목사육 준비 ⑫기업하는 학교 마을조성이라는 방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젊은 청년 인재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역사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지역자활센터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항상 질문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하나하나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글 양기운 남원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이사장)

● 자활사업 유형/기능다변화 시범사업이 궁금하다면
자활 TALK(35p)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 새로운 행복을 선사하다 “문화와 만나는 좋은 기회 계속 마련하고자”

강성아 용인지역자활센터 팀장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 맞도록 삶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

물질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삶의 질은 향상된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이 정서적 안정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 중인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은 바로 이 문화·예술 활동의 좋은 예다.

자활 참여주민의 삶에 내리는 행복의 단비가 돼주고자 하는 이곳 사업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에 응해준 강성아 용인지역자활센터 팀장

용인지역자활센터

2001년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자활의욕 및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www.yijahwal.or.kr ☎ 031-8005-8038

첫눈 내리던 날 찾은 용인지역자활센터는 바깥 날씨와는 정 반대로 따뜻한 기운만이 흘렀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이하 문화예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아 팀장의 선한 미소도 공기를 덥히는 데 한몫하고 있었다.

중앙자활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업사업인 문화 예술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문화복지사업이다. 자활 참여주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예술활동을 통해 정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 이번 사업에 대해 강 팀장은 꼭 한번 운영하고 싶던 종류의 사업이라며 반가워했다. 집과 일터밖에 모르는 참여주민들에게 가끔 영화 관람이나 고궁 나들이 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속성을 지닌 사업형태의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합창, 난타, 오카리나, 기타 등의 종류로 분류돼 있는 문화예술사업. 이 가운데 용인지역자활센터는 난타를 선택했다. 참여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협동심 고취에 가장 도움이 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수업을 진행할 강사는 물론, 난타를 위한 모든 장비를 지원받았기에 비용부담은 전혀 없었지만, 처음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주민을 독려해 참가를 유도하거나 그들을 고려한 일정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모집한 참가자는 총 9명. 여기에는 센터 직원 김양희 실장도 포함돼 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는 수업을 모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단 30분이라도 틈틈이 자리하며 적극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이제는 김 실장처럼 조금씩 재미를 느끼며 난타의 '맛'을 알아가고 있는 다른 참가자들도 처음엔 강 팀장에게 걱정을 토로하곤 했다고 한다. 한 명 한 명 각각의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음악이 되는 난타에서 본인의 실수로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이에 강 팀장은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그 덕분인지 현재는 밝은 표정으로 즐기며 수업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만이 보였다.

각자 아픈 사연이 있어 다소 내성적인 성격의 참여주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하던 강 팀장도 조금씩 변해가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면모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자활 참여주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정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난타'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첫 수업 만에 강사님이 참가자분들의 이름을 다 외워 한 명씩 불러주며 수업을 진행하세요. 그런 애정 어린 마음이 참가자들의 의욕을 높이는 것 같아요. 또 수업이 진행될수록 서로가 협동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져 보람을 느낍니다.” 작은 여유라도 큰 용기가 필요한 참여주민들에게 선물처럼 열린 이번 기회가 이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서적 안정을 돕는 문화예술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깊이 뿌리내려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길, 그래서 더욱 많은 참여주민들이 혜택 받길 강 팀장은 간절히 바랐다.

현재 문화예술사업팀은 12월에 열리는 지역자활센터 연말행사에서 난타공연을 펼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준비 중이다. 아직 배운지 얼마 안 된 서툰 손길이지만, 정식 공연을 하게 되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일에 지친 이들에게 행복의 단맛을 일깨우는 자활센터 문화예술사업. 작은 쉽이 주는 큰 가치로 더 많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길 바라본다.  글·사진 박진혜 기자

리듬으로 빚어낸 맛과 향기의 타악멜로뮤지컬

「난타」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악기처럼 두드려 소리를 내고,
각기 다른 소리들이 조화를 이뤄 흥겨움을 자아내는 난타.
평범 속 비범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는 이 파괴력 있는 퍼포먼스는
어느새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콘텐츠로 자리했다.



난타는 이미 40만 명 정도가 관람하였고 현재도 매진사례다.
에딘버러 세계공연예술축제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뉴욕브로드웨이에 전용관을
열어 공연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외국관광객들의
주요 감상작품이기에 국제적 명성도 획득하였다.

1997년 하반기 한국사회는 외환위기라는 경제 한파에 독감이 걸린 상태였다. 기침·콧물에 몸살까지 겹쳐 휘청거릴 때 몸을 데우는 따끈한 커피 한 잔이 연극계로부터 건네졌다. 1997년 10월 호암아트홀에서 「난타」가 초연된 것이다. 「난타」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사없이 공연되는 넘버벌퍼포먼스로 낯선 형식이었지만 경제의 엄동설한을 녹이는 한 줄기 작은 빛이었다.

뮤지컬은 화려한 조명과 의상,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노래와 음향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난타」는 칼로 도마를 두드리고 막대기로 드럼통을 두드리는 타악의 리듬만으로 인간의 질투와 격한 감정을 묘사한 타악멜로드라마의 절창이다.

「난타」는 이미 40만 명 정도가 관람하였고 현재도 매진사례다. 99년 에딘버러 세계공연예술축제에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뉴욕브로드웨이에 전용관을 열어 공연을 한 바 있으며, 수많은 외국관광객들의 주요 감상작품이기에 국제적 명성도 획득하였다. 한국형 문화예술의 아이콘이었으며 원조한류의 진앙지이기도 했다.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열망이 고조될 때 흔히 오가던 말은 이랬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피아노, 바이올린보다 가야금과 쥘리리를 연주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가야금과 쥘리리도 중요하지만 피아노, 바이올린을 알파서도 안되는 것이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은 이미 세계 공통의 문화가 되어 버렸기에 이들을 무시한 채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는 없다. 세계 공통의 문화와 융합하며 한국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난타」는 피아노와 쥘리리가 융합된 작품이다. 피아노와 쥘리리가 「난타」 공연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지만 피아노로 상징되



“
 난타는 타악의
 리듬만으로
 인간의 격한 감정을 묘사한
 타악멜로드라마의
 절창이다
 ”

는 서양문화와 팽과리로 상징되는 한국의 전통 타악 예술정서가 융합된 작품이다. 그래서 커피인 것이다.

작품 배경은 레스토랑의 주방이다. 매니저는 세 명의 요리사에게 짧은 시간에 수많은 결혼식 하객들의 요리를 완성하라고 지시한다. 매니저는 텀으로 완전 초보 요리사인 자신의 조카(네퓨)를 요리팀에 끼워 넣는다. 뮤지컬은 서사가 근간이고 서사의 근간은 갈등인 법, 프로 요리사만의 서사였으면 향기 없는 요리가 만들어졌을 텐데 초보 요리사의 서사가 끼어들어 갈등이 부각되어 작품은 맛과 향기를 머금게 되었고 더불어 재미까지 품게 되었다.

사람들은 사소한 화해와 사소한 사건에 감동받아 울컥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다투는 요리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퓨는 요리사들의 돌도 없는 소음공해였다. 그렇지만 요리사들은 요리 과정의 정신적·육체적 스킨십을 통해 네퓨와 화해한다. 잔잔한 감동의 멜로에 썸타는 두 명의 요리사가 만들어내는 긴장과 사랑액션 멜로가 덧붙여져 썰고 다듬고 볶는 요리멜로가 완성된다.

멜로는 미묘한 감정의 교차가 격정으로 이어지는 장르이다. 타악의 소리는 사람을 쉽게 격정으로 이끈다. 사물놀이 연주 마지막 부분의 휘몰아치는 소리가 바로 이 경우다. 그러나 타악은 미묘한 감정을 교차시키기가 쉽지 않다. 타악은 멜로디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난타」는 갈등부각에 잔잔한 화해를 버무렸다. 서사의 근간에 충실하며 멜로적 요소를 섞어 완성의 마지막 점을 찍은 것이다.

요즘 쿡방에서의 최고 재료는 독특한 언어다. 요리하는 과정에 재밌는 말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난타」 요리에서의 최고 재료는 두드림과 몸놀림이다. 부딪치는 소리와 액션이 허공을 가르면 인간의 예술감성을 자극할 뿐 의미있는 언어 한 마디 휘돌지 않는다.

「난타」가 초연될 당시 「스톱프」등의 몇 개 넘버벌퍼포먼스 작품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상태이었다. 「난타」는 「스톱프」의 아류작이 될 위험도 있었지만 스토리를 강화한 미덕에 덧붙여 관객활용에 문화융합이라는 화장술까지 가미하여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글 심상교 부산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입니다.



가난이라는 벽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쥐고 그 벽을 오릅니다.



나를 다시 세워줄
'자신감 있는 노동'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희망의 씨앗을
나누려 갑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자활사업 유형/기능다변화 시범사업 목표는 무엇인가요?



Q

보건복지부가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시·군·구 내 2곳 이상의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경우 기능을 나눠 보다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몇 개의 기관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7개 기관입니다. 2015년 시흥작은자리, 마산희망, 제주이어도, 남원, 봉화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작되었으며 2016년에 안산,충주지역자활센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기능 다변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지역자활센터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입니다.

조직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은 없나요?



Q

전환에 따르는 종사자의 고용불안, 생소한 사업전개 방식에 대한 두려움, 우리사회에는 다소 생소한 사업모델 등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 사업이 확대되는 것인가요?



A

물론입니다. 2016년에도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유형/기능다변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직접고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미 배출된 자활기업과의 공동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중앙자활센터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다가왔습니다.

2015년을 기억해보면, 자활사업 뿐만 아니라 중앙자활센터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진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되짚어 볼까요?

1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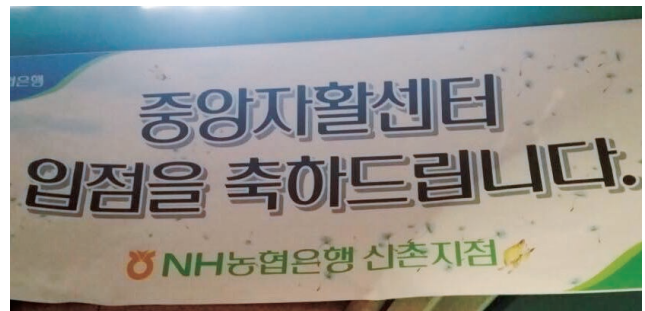
2015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5개 센터의 참여기관 종사자의 연수를 진행하여 사업지침, 경과설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간담회,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연수 및 설명회 끝난 후 단체사진

2 중앙자활센터 사무실 이사

지난 9월, 중앙자활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하였습니다. 층무로에서 신촌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축하하는 환영 현수막 A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

5 자활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자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에서 시스템을 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활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교육진행 중

6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시범사업 '드림셋'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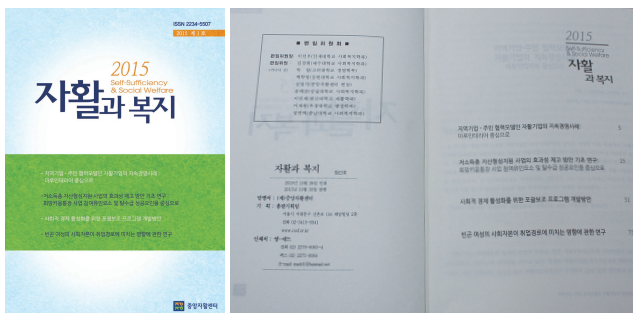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가 협력해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합니다.



드림셋 사업 설명회 진행 중

3 학술지 '자활과복지' 창간호 발행

2015년 10월, 중앙자활센터는 첫 번째 학술지를 발행했습니다. 앞으로 빈곤과 자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학술지로 만들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술지 창간호 표지

7 전국자활기업 설립지원

중앙자활센터는 전국자활기업 조기설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번째로 돌봄영역에서 전국자활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주거복지 전국자활기업 설명회

4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사업 시작

4개 시·도(강원, 경기, 경북, 대전)의 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참여자·종사자 교육과 접목하여 문화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용인자활센터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인 '난타' 예술교육

8 사업관련 업무협약 진행

유관기관과의 협약해 교육, 사업,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연수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약식 끝난 후 단체기념 사진

겨울엔 책이 가장 따뜻해

마음까지 시려 오는 요즘 책만큼 좋은 친구가 없다.
우리는 책을 보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 받거나 용기와 조언을 얻는다.
당신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책을 소개한다.



나눔 행복한 동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 /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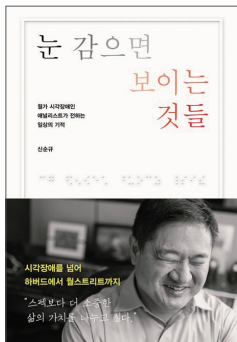
우리 주변 곳곳에서 조용히 나눔을 실천해 온 사람들의 생생하고 따뜻한 이야기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인천 쪽방촌 주민들, 월급의 일부를 모아 기부한 장애인부부, 100원의 커피 값을 모아 기부한 착한 가게의 사원이 담겨 있다. 진정한 돈의 가치, 그리고 나눔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내가 제일 잘할 일

박금선 저 / 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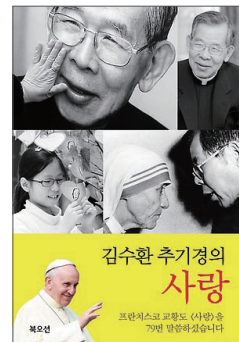
이 책은 성매매 현장을 벗어나 지금은 '자활'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성매매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자활'이라는 이름의 구슬을 선택한 용감한 영혼들이다. 무거운 주제를 희망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언어로 담아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신순규 저 / 판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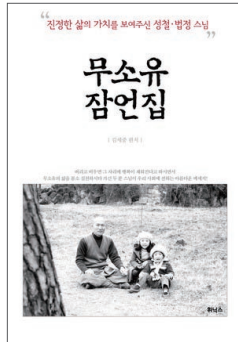
미 월가의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일상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전하는 에세이다. 저자는 녹내장과 망막박리로 아홉 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을 배웠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얻을 수 있었던 삶의 단순한 지혜와 감동의 순간들을 전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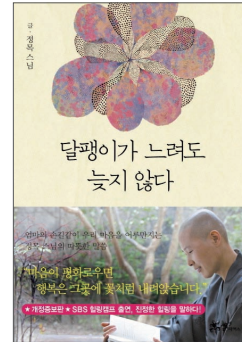
김수환 저 / 복오션

이 책은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으며 일평생 사랑을 실천한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를 담은 책으로, 선종 5주기를 맞아 그가 미사, 강연, 메모 등을 통해 세상에 내놓은 사랑의 언어를 한데 묶은 것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담은 절절한 메시지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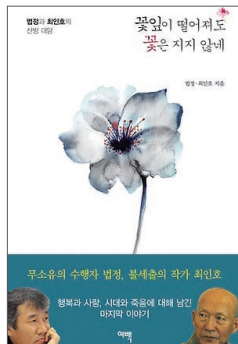
무소유 잠언집
김세중 저 / 휘닉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삶의 지혜를 전해온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다양한 이야기를 덧붙여 풀어낸 잠언집이다. 이 책은 두 스님의 가르침을 무소유의 길, 인연, 침묵, 명상, 마음, 지혜, 자유, 사랑, 행복, 무소유의 삶이라는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무소유'를 풀어내고 있다.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저 / 쌤앤파커스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선물하고 있는 정목스님의 다양한 글로 구성된 책이다. 삶에 대한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은 질문을 던지며, 상처 입은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해 온 저자의 경험과 함께 지혜가 넉넉히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법, 오해에서 벗어나는 법 등을 알려준다.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정, 최인호 저 / 여백

2003년 4월, 길상사 요사채에서 가진 법정과 최인호의 네 시간에 걸친 대담을 책으로 엮었다. 이 대담에서 두 사람은 행복과 사랑, 삶과 죽음, 시대정신과 고독 등 11가지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깊이 있는 사색과 시적 은유로 가득한 언어를 주고받았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둘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상처 떠나보내기
이승욱 저 / 예담

이 책은 정신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의 뿌리를 찾아내고, 오랫동안 삶을 짓눌러온 상처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돕는 카운슬링 심리 치유서이다. 저자는 내담자 5명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각자 삶의 여정과 그 상처의 모습도 다르지만 상처는 대부분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마냥 감사할 따름이다.
삶은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인생을 포기하려 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오십대 중반의 나이에 주어진 삶의 마지막 기회에서
그동안 내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데 온힘을 쏟을 작정이다.
주변인들에게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자활센터를 통하여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자활참여자들이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여 새로운 꿈을 통하여
‘자활 자립’의 길을 열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까지 함께하며 큰 힘이 되어주신 자활센터 모든 가족들께 감사드린다.

(중략)

자활성공수기 중에서



중앙자활센터